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 안전 점검

정읍시가 전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계절근로 참여 농가의 작업장과 숙소를 대상으로 인권 관리와 인권 보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가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숙소와 작업장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읍에는 190여 농가에 약 7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언어소통 도우미 2명을 배치해 '소통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돕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미래 숲 키우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

정읍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어린나무 성장을 돕기 위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북면, 입암면, 응동면 산외면 등 6개 지구 204ha의 조림지에서 모목 주변 풀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 직후 초기 생육 단계에 있는 나무들이 햇빛과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어린나무의 생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7월 207ha의 1회차 풀베기를 완료, 매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2회차 사업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산림경영 단계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원면 리조트 · 골프장 추진 촉구

고창 심원면 사회단체 “고창종합테마파크 비리신고 성명, 사실과 달라”

고창군 심원면 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비리신고 성명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창군을 향해 심원면 리조트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매립해 골프장을 만든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부지는 갯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 파괴 사업이라는 주장도 과장이라고 했다.

심원면 사회단체는 “습지 및 보호종 서식지 위협이라는 주장은 환경 파괴 프레임을 씌우면서 평가하는 행위”라며 “고창군과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



고창군 심원면 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비리신고 성명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고도 했다.

또한 염전 보존이 지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원면 사회단체는 고창군에

심원면 리조트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지역의 자존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사업 · 공약 추진 철저 대응”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 민선8기 공약 · 현안 관리 · 축제 안전 관리 철저 당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5일 건부회 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사전 검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관리, 가을 축제 안전관리, 용역 추진 관리 등 군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 군수는 최근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우리군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정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 국가유산 아행 품소짓 갈축제, 품소만 왕새우축제, 붉은노을 축제 등 가을철 축제 · 행사와 관련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통 · 화재 ·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악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고,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권 군수는 부서별 정책 용역 추진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체육시설 5개소 안전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정읍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관리대상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 구조

물 제원과 외관 상태 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 그 결과에 맞는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 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체육시설로,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3개소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2개소 등 총 5개소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 · 고시하고,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고창군, 280명에 1억5150만원 지급... 1인당 30~60만원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민 공익수당으로 280명에게 1억5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30~60만원이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 ·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2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어민수당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카드형 신청자는 본인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신청자는 읍·면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민공익수당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수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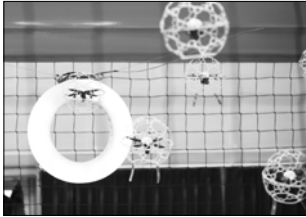
군, 전국 16개 드론축구팀 출전 예선 · 본선 토너먼트 경기 성료

고창군이 지난 13일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과 많은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청소년 드론축구팀이 출전에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거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드론축구는 수비수 4명에 공격수 1명 등 5명씩으로 구성된 두 팀이 3m 공중에서 움직이는 드론볼을 조종하며 겨룬다. 13m 떨어진 양면 원형 골대에 드론볼이 통과하면 득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음과 불빛을 내며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드론볼, 축구공처럼 생긴 것이 박진감을 자아냈다. 드론볼끼리 격



하게 부딪힐 때는 조종하는 선수들의 합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드론 특유의 빠른 기동성과 정교한 조작이 어우러진 경기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며 “드론 축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소년들의 패기와 열정이 고창의 하늘을 더욱 빛나게 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친화현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부안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회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친화현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부안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현정대상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으며, 정책 · 입법 ·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우수자 차단체로 선정한다.

부안군은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 △결혼장려금 및 출생축하금 지원 △청년 △청춘실현실 · 부실물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청년친화 정책 추진을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참여예산학교, 청년포럼 등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해 온 성과”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